

제6장



통일정책의 지지기반 확충

-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 제3절 통일교육의 내실화
- 제4절 국제협력강화 및 해외 홍보
- 제5절 북한 정보자료 제공 및 개방 확대
- 제6절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업무 혁신



제6장 통일정책의 지지기반 확충

정부는 통일정책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이 국민적 합의에 있음을 인식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주요 정책 추진과 관련, 국회를 비롯하여 여야 각 당과 사전·사후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 각계각층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아울러 대북정책 추진 현황과 남북관계 현안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제1절 국민 참여 확대

1. 정책고객과의 대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국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통일문제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넓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린 통일포럼」과 「장관-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추진하였다.

「열린 통일포럼」(이하 포럼)은 장관과 관계 실국장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대화채널이다.

2003년도에 서울과 주요 지방 도시에서 각계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18회 개



장관-정책고객과의 대화

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 참여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하반기에는 직·간접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관-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실시하였다. 장관과 관계 실국장이 정책 실수요 고객들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고객인 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산출하고,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장관-정책고객과의 대화」는 개성공단입주기업 대표, 남북 사회문화 교류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총3회 실시하였으며, 이 밖에 부서장 주최의 정책고객과의 대화도 활발히 추진하였다.

「정책고객과의 대화」, 포럼 참석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건의와 애로사항은 세부 정책 추진계획 수립 및 개선 시 적극 검토·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을 산출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2. 모니터링단 운영 및 국민여론조사 실시

2004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통일정책 모니터링」은 국민들이 통일부의 정책을 상시 평가하고 그 의견을 정책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정책 품질을 향상시키고

최한데 이어 2004년도에는 여성단체 대표, 주한 외교사절, 통일교육 전문위원 등 직능별로 특화하여 상반기 동안 총 6회의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970명이 참석하였다. 포럼은 국민들의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자 하는 제도이다. 2004년에는 학자, 남북경협 참가 기업인, 대북지원 및 통일운동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축, 3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2005년도에는 모니터링단의 규모를 대폭 늘이고, 평가 대상 사업 및 모니터링 횟수를 확대하여 국민평가 중심의 모니터링을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통일 및 대북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 위해 폭넓게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3회의 정기 여론조사를 통해 북한 핵문제, 개성공단건설 사업 등 주요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의 여론을 파악,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문기구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

통일부는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을 종합하고 국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통일고문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통일고문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 인사 중에서 통일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2003년 7월 이홍구 의장을 비롯한 통일고문 30명으로 「참여정부」 제1기 통일고문회의가 구성되었으며, 대통령에 대한 정책자문과 직능별 여론수렴활동 등을 통해 통일정책 수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3회의 정기회의를 통하여 북한의 경제변화에 대한 정확한 분석·평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 용천재해지원 및 복구관련 백서 편찬, 남북 사회문화교류 활동지원, 개성공단 개발사업 지원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건의하였다.

【 통일고문 명단 】

성 명	직 책
이흥구(의장)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前) 국무총리
강만길	상지대학교 총장
길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경원	사회과학원 원장, (前) 주미대사
김법장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김민하	중앙대 명예교수,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성수	성공회대학교 총장
김숙희	한국식품영양재단 이사장, (前) 교육부장관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前)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김재창	한미안보연구회 공동의장, (前)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남재희	호남대 객원교수, (前) 노동부장관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영숙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이사장, (前) 평민당 부총재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오기평	(前)세종재단 이사장
이경숙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 (前) 국방부장관
이성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세중	환경재단 이사장,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연택	대한체육회 회장, (前) 노동부장관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총재,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前) 통일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조순승	울산대 석좌교수, 13·14·15대 국회의원
최창무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前) 가톨릭대학교 총장
최학래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前) 한겨레신문사 사장

한편, 주요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평가를 통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적실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통일정책 평가회의」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평가회의는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에는 정기 평가회의 2회,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수시 자문 등을 통해 대북정책의 효과적 수행에 기여하였다.

【 통일정책 평가위원 명단 】

위촉기간 : 2004.3.1~2005.2.28

성 명	직 책	성 명	직 책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이숙자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길정우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노진환	한국일보 주필	임영숙	서울신문 주필
민병석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	임혁백	고려대 정외과 교수
박영규	통일연구원장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백종천	세종연구소 소장	제프리존스	변호사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조 형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양 건	한양대 법학과 교수		

또한 주요 대북 통일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2004년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사회문화교류, 통일 교육, 남북회담 등 6개 분과위 6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한해동안 총 19 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명단 】

위촉기간 : 2004.7.1~2005.6.30

통일정책 분과위 (11명)	북한정보 분과위 (8명)	교류협력 분과위 (14명)	사회문화교류 분과위 (11명)	통일교육 분과위 (12명)	남북회담 분과위 (11명)
양승함 (연세대)	이 호 (한밭대)	김영윤 (통일연구원)	고성준 (제주대)	전태국 (강원대)	장달중 (서울대)
백학순 (세종연구소)	현성일 (통일정책연구소)	조동호 (KDI)	서재진 (통일연구원)	김성운 (단국대)	윤덕용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이신화 (고려대)	윤덕희 (명지대)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신 울 (명지대)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구갑우 (경남대)
신성택 (국방연구원)	전현준 (통일연구원)	양문수 (경남대)	이강열 (국민일보)	윤인진 (고려대)	박명림 (연세대)
박종철 (통일연구원)	박형중 (통일연구원)	최연혜 (철도대)	박윤숙 (삼육대)	이원섭 (한겨레신문)	백승주 (국방연구원)
송문홍 (동아일보)	안희창 (중앙일보)	남영숙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이종훈 (동북아시민포럼)	정현백 (성균관대)	백영옥 (명지대)
김경숙 (공주대)	김병조 (국방대)	차은영 (이화여대)	이윤상 (나눔인터넷서널)	정숙경 (디지털문화연구소)	이봉철 (한남대)
김민정 (서울시립대)	정영순 (정신문화연구원)	남성욱 (고려대)	김숙림 (민화협)	김민전 (경희대)	이금순 (통일연구원)
김근식 (경남대)		오승렬 (한국외대)	오양렬 (문화예술진흥원)	신수범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전재성 (서울대)		안예홍 (한국은행)	이기현 (방송영상 산업진흥원)	이서항 (외교안보연구원)	
황정근 (김&장법률사무소)		박정원 (국민대)	김수일 (부산외대)	정진민 (MBC)	
		한기윤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		이백규 (김&장법률사무소)	
		박상권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강근 (법무법인 백두)			

4. 민간 통일단체 활동 지원

1980년대까지 통일운동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 등 몇몇 단체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그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활동 영역도 점차 전문화·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야 할 분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04년도 민간 통일운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단체간에 남북공동행사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6.15 남북공동행사’ (6. 14~17, 인천), ‘개천절 남북공동행사 동시개최’ (10. 3, 서울·평양)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남북 공동행사들은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였다.

정부는 민간 통일운동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 단체의 정책제언을 적극 수렴하여 통일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다.

2004년 12월말 현재 통일부 허가 비영리법인 통일운동단체는 총 140개이며, 2004년도에는 총 27개의 신규단체가 허가되었다. 또한 민간 통일관련 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23건, 장관상 6건, 장관표창 3건 등을 지원하고 총 15건의 판문점 견학을 주선하였다. 특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는 3억5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8.15 평화음악회, 청소년 통일한마당, 통일포럼, 지역순환 연찬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히는데 노력하였다.

【 2004년도 신규 허가법인 현황 】

2004. 12. 31

단 체 명	대 표 자	단 체 명	대 표 자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조동래	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김성호
통일교육문화원	이성구	평화재단	최석호
북한사회문화학회	전숙자	평화협력원	정세현
한백정보문화연구원	김복산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	이수성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김동근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윤장현
북한인권정보센터	김상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김중배
디팩터스비전	김봉기 · 장국철	등대복지회	인요한
남북청소년교류연대	설용수	한마음남북장학재단	윤석철
나눔인터내셔널	이윤상	평화3000	호인수
통일문화예술인협회	홍성덕	남북학술교류협회	강만길
NK인포메이션센터	허창걸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조직위원회	김원웅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한완상	지금우리가다음우리를	조홍규
국제사랑재단	김기수	한반도평화를추구하는모임	김봉옥
한민족상조협의회	김귀덕		

제2절 통일홍보의 다각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대북정책과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북 정책 추진 내용과 남북관계 진전 상황을 정확히 알려 국민적 합의기반을 넓혀 가는 동시에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 국민 홍보를 적극 전개하였다.

우선 통일홍보의 대상이자 수요자인 국민들의 관심사가 계층 및 세대에 따라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내용 발굴에 힘썼다. 또한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방법과 매체의 다각화를 추구하였다.

1.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강화

인터넷은 사용인구가 늘고 정보화가 진전된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높은 정보화 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방적 전달이 아닌 쌍방향 홍보가 되기 위해 인터넷, E-mail 등을 적극 활용하였다.

가. 통일부 홈페이지

1996년 12월 개설된 통일부 홈페이지는 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 및 북한동향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국문 및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털 사이트로 자리잡아 왔다.

2003년에는 참여정부 들어 강조하고 있는 국민참여 및 정보공개 활성화, 정책 홍보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홈페이지를 개편하였다.

먼저 국민참여 및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제안마당을 강화하여 분기별 우수제안을 발표·포상하고 제안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보 공개 창구를 확대·개편하여 주요문서 목록과 각종 결재문서, 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 전자민원창구를 이산가족, 교류협력, 일반민원으로 분류·체계화시켰다.

이밖에도 2003년 홈페이지 개편시에는 평화변영정책의 성공을 상징하는 플래시 영상으로 대표 이미지를 새롭게 디자인하였으며 9개 메인 메뉴를 6개로 단순화시켜 국민들의 자료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2004년에는 영문 홈페이지에 통일부 비전을 소개하기 위한 「Unification Policy」 및 생동감있는 통일정책 홍보를 위한 「AUDIO & VIDEO」를 개설하였고 일부 메뉴는 외국인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메인 화면만 보아도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부 홈페이지

국문 홈페이지는 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메인 및 서브 화면의 디자인을 변경하였고, 메인 화면에는 자주 이용되는 콘텐츠를 배치하여 이

용 편의를 도모하고 통일부 업무를 분야별로 분류하여 업무현황 자료들을 수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는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관한 포털 사이트로 위상을 확실히 하며 행정서비스의 실제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자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북한자료센터 : unibook.unikorea.go.kr」, 남북회담에 관한 종합적인 자료를 축적해 놓은 「남북 회담자료 : dialogue.unikorea.go.kr」, 이산가족교류절차 등을 다루는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 reunion.unikorea.go.kr」, 남북교류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남북 교류협력시스템 : inter-korea.unikorea.go.kr」,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통일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이버 통일교육센터 : uniedu.go.kr」를 운영하고 있다.

1998년에 개통된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 unibook.unikorea.go.kr」는 통일 및 북한관련 자료 10만 여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의 소장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영화 상영 및 북한실상 설명회 등 행사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에는 홈페이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북한관련 DB」와 「북한/통일정보」 메뉴를 신설함으로써 통일부 발간물의 원문검색과 북한 및 통일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9년 서비스가 개시된 「남북회담자료 홈페이지 : dialogue.unikorea.go.kr」는 1971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개최된 각종 남북회담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수록되어 있다.

주요 메뉴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장관급회담, 고위급회담, 적십자회담, 경제분야 회담, 군사분야 회담, 사회문화 분야 회담 등 여러 갈래의 남북회담 진행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정리해 놓은 「남북회담사」, 남북간 최종 합의서와 해설자료를 모아둔 「남북합의서」, 남북대화연표·남북대화 등 남북회담개최 현황자료를 정리한 「회담자료실」, 기타 판문점 현황자료, 「남북 대화」 영문판인 「South-North Dialogue」, 남북간 합의서 영문판 「Intra-Korean Document」 등이다.

2004년에는 일러스트레이션화한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도서검색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소장 도서의 체계적 관리를 기하는 한편 자료 이용자들이 관련 정보 검색을 하는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는 이산가족 정보교류 및 가족상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 12월에 개통되었으며, 「남북이산가족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12월말 기준 12만 4천여명의 남북 이산가족찾기 신청이 등록되어 있으며, 2000년 8.15 상봉을 계기로 시작하여 2004년 말까지 10차례의 이산가족 방문 단 교환사업과 2차례의 생사확인·서신교환 추진의 일선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말에는 영상, 사진, 음성서비스 코너를 정비하고, 상봉행사시 선정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이버민원의 처리상태 알림기능으로 사용자 편의를 더욱 개선하였다.

향후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따른 면회소 상봉을 추진하게 되면 본격적인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할 것이며, 10만 이산가족대상 영상기록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상봉 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예정이다.

2003년 개통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민원의 신청과 승인 등을 인터넷으로 처리하고, 물자 반출입 내역을 전자문서거래(EDI) 형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주요 메뉴로는 북한 및 남한 방문, 북한주민접촉, 협력사업, 교역물품 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등이 있으며, 신원진술서 등 각종 부가서류 제출을 비롯하여 신청, 승인, 조회 및 승인서 발급에 이르기까지 남북교류 관련 민원의 전 과정을 인터넷 상에서 처리하고 있다.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 : uniedu.go.kr」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을 극복하고 통일교육 서비스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2000년 10월 13일 개통되었다. 2004년에는 방문자수가 3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통일교육 포털 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통일교육센터는 교사와 학생 등 통일교육 관련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소년 통일배움터」 코너는 ‘통일만화’, ‘가상 북한여행’, ‘북한의

명절’, ‘통일게임’, ‘한마음학교’ 등 초·중등학생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보조교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건전한 통일의식의 함양을 위한 청소년대상 코너의 특화를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 권장사이트’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도서자료’, ‘일반자료’, ‘대학통일교육자료’, ‘동영상모음’, ‘사진갤러리’로 구성된 「자료실」은 통일교육 연구자 및 학교·사회통일교육 실시자(교사)에게 매우 유용한 코너이다.

【 통일부 운영 홈페이지 현황 】

단 체 명	대 표 자	대 표 자
통일부	unikorea.go.kr	통일소식, 전자민원창구, 참여마당, 북한이해, 자료실, 통일부안내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소장자료검색, 북한/통일정보, 북한관련DB, 북한영화소개, 자료실
남북회담사료	dialogue.unikorea.go.kr	남북회담사, 남북합의서, 사료 데이터베이스, 자료실, 정보검색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남북이산가족 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남북교류협력시스템	inter-korea.unikorea.go.kr	북한 및 남한방문, 북한주민접촉, 협력사업, 교역물품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사이버통일교육센터	uniedu.go.kr	온라인 통일강좌, 통일교실, 북한청소년백과, 자료실, 참여마당

나. 정책고객서비스 실시

통일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고객서비스(PCRM)는 일반 국민·전문가를 대상으로 관심분야에 따라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쌍방향 직접홍보 서비스를 말한다.

2004년 2월 9일 PCRM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기존 고객의 정보를 DB에 분류·등록하였으며, 2004년 12월 31일 현재 등록현황은 기본고객 3,359명, 특정고객

8,590명, DB연계고객 8,886명 등 총 20,835명이다.

통일부 정책고객서비스는 정책고객에게 뉴스레터(주1회), 정책소식지(월1회), 회담 관련 해설자료와 각종 정책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고객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월1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정책소식지는 대북정책, 사회문화, 경제교류, 통계자료, 그건 이렇습니다, 장·차관 연설문 및 다음달 주요일정 등을 종합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통일문제 전문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고객별 다양한 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자료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정책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해외동포 및 해외 주요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정책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 인터넷 전자공청회

전자공청회는 사이버공간에서 특정 현안문제를 놓고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네티즌 상호간 그리고 발제자와 활발한 토론을 펼침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전자공청회는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매년 3~4회 개최되며 네티즌은 활발한 토론과 진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한 네티즌을 우수토론자로 선정하여 금강산 여행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시상하고 있다.

통일부는 인터넷의 대중화에 따라 2000년 9월부터 기존의 PC통신 전자공청회를 인터넷 전자공청회로 대체하였으며, 2004년 말까지 인터넷 전자공청회를 총 14차례 개최하였다.

2004년에는 「탈북자란 용어를 다듬어 주세요」 등을 주제로 3차례의 개최를 통해 총 4,387건의 네티즌 의견이 제시되었다. 3차례의 공청회에서 110,000여건의 접속과 81,000여건의 의견조회가 이루어져 공청회 개최 이래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이 전체 참가자의 67%를 차지, 주도적으로 토론에 참

여함으로써 공청회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전자공청회는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네티즌 토론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 2004년 인터넷 전자공청회 개최 현황 】

구 분	개 최 기 간	주 제	의견제시 건 수	내용조회 건 수
제1차	5.24~6.6	통일문제에 대한 청소년층 관심 제고방안, 통일 이후 우리의 삶	1,137	16,619
제2차	9.13 ~ 9.26	탈북자 대체용어 제안, 소강국면인 남북관계 대책	2,029	29,095
제3차	11.24 ~12.7	2004년도 남북관계 평가 및 내년도 추진방향,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1,233	35,910

또한 통일부는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개념을 국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이해하고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북한 및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이버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2004년에는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 캐릭터 및 통일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 결과 캐릭터 부문에서 190편, 캐치프레이즈 부문에서 총 872명이 응모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친 내·외부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캐릭터 대학(원)생 부문에 「피니 톱니」를, 중·고등 부문에 「설스 & 놀스」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캐치프레이즈 부문에서는 「알고 있니? 선 하나만 지우면 더 많은 친구가 생겨」를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입상작품은 향후 통일부의 각종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일 및 남북문제에 대해 느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모전 등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를 정기

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2004년 공모전 개최 현황 】

공 모 전	공 모 주 제	당 선 작	
○ 청소년 대상 통일 캐릭터 공모 (4.21~5.31)	○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즐겁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창출	○ 대학생 부문 - 「피니 티니」 - 「풍순이와 진돌이」 - 「무궁과련」	○ 중·고등학생 부문 - 「설스&놀스」 - 「다숨」 - 「남이와 북이」
○ 청소년 대상 통일 캐치프레이즈 공모 (4.21~5.31)	○ 청소년들이 통일문제를 '즐겁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미지 창출	○ 「알고 있나? 선 하나만 지우면 더 많은 친구가 생겨」 ○ 「이땅의 허리띠를 풀어요」 ○ 「할아버지 아버지의 소원 이제는 나의 소원」 ○ 「기다림이 아닌 다가감으로」	

2. 홍보자료 발간·보급

2004년도 홍보자료는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남북관계의 추진성과를 올바르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어 제작·보급되었다.

각종 홍보자료는 수요자인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고려하고 세대별·계층별 눈높이에 맞춰 제작·배포하였다. 남북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쉽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 전국적으로 널리 보급하였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시청각자료의 제작·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하철 공익광고 방송을 통해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는 한편, 「평화와 번영의 길」이란 홍보용 영상자료를 국문·영문으로 제작·배포하였다.

「평화와 번영의 길」 홍보자료에는 홍보용 영상자료 외에도 분야별 북한 알아보기, 남북관계 현황자료 등이 사진자료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특히, 통일부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통일문제가 어렵지 않고, 나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청

소년 대상 홍보 브랜드」를 개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국내 캐릭터 업체들의 협조를 받아 마린블루스, 둘리, 마시마로, 종로7가, 파페포포 등의 인기 캐릭터를 선정하였다.

이들 캐릭터가 등장하는 통일이야기·남북이야기를 3편의 플래시 애니메이션과 8편의 웹 카툰으로 만들어서 통일문제에 대해 청소년들이 쉽고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2005년에도 캐릭터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청소년대상 통일홍보 거리이벤트



통일홍보 플래시애니메이션 「사랑의 나무」편

【 2004년 주요 홍보자료 발간 현황 】

자 료 명	발 간 부 수 (수 량)	형 태
「2004 통일백서」	7,000	책자
「참여정부 1년 남북관계」	31,500	리플렛
지하철 공익광고방송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1	영상자료
평화번영정책 해설 영상자료 「평화와 번영의 길」	17,000	CD
평화번영정책 추진현황 설명자료 「평화와 번영의 길」	17,000	리플렛
청소년대상 통일홍보 콘텐츠 「하나의 소망」	1	CD
영화관 상영용 영상광고 「청사초롱」편	1	영상 광고

3. 언론매체 활용 홍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현황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적 이해를 구함으로써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폭넓은 합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를 위해 각종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언론 인터뷰와 인터넷신문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서도 대북정책 추진현황을 신속하게 알려왔다.

가. 보도자료 배포 및 대언론 브리핑

대북정책 추진 관련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기자단에게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해왔다. 보도자료는 통일부 등록 기자단에 게 배포함은 물론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도 게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2004년 한 해 동안 213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장·차관이 33회, 실·국장 및 공보관이 91회의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한편, 대북정책 추진과 남북관계 등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보도해명자료의 신속한 배포와 반론권 청구 및 언론중재 등을 통해 올바른 사실이 보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2004년 한해 동안 49건의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으며, 독자투고 형식 등의 반론을 7건 실었다. 또한 사실무근인 2건의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신청을 통해 해당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하였다.

나. 언론 인터뷰 및 방송출연

대북정책 추진과 주요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서 인터뷰 및 방송출연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04년 한해 동안 장·차관은 35회의 인터뷰와 14회의 방송출연을 통해 중요 현안에 대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주요 언론사 논·해설위원, 비정부단체(NGO), 통일부 등록 기자들과 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내용과 관련동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 통일부 인터넷뉴스 운영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현황을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알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대북정책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뉴스인 「국정브리핑」내에 「통일부 뉴스」(unikorea.news.go.kr)를 운영하고 있다. 2003년 9월에 개설된 이래 ‘정책속보’, ‘보도자료’, ‘포토뉴스’, ‘통계로 본 남북관계’, ‘남쪽에 와보니’ 등 다양한 형태로 대북정책 추진성고를 알려왔다.

‘정책속보’에는 개성공단 개발 등 주요 현안과 남북회담 개최 현황, 금강산관광 협력사업, 남북 철도·도로연결 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현황, 대북 비료·식량 지원,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 현황 등을 다루고 있으며 2004년 한해 동안 170건의 뉴스를 실었다.

‘보도자료’ 란에는 언론에 배포하는 보도자료를 게재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게재하는 등 국민들의 정보자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해왔다. 2004년에 게재된 보도자료는 213건이다.

‘포토뉴스’ 란에서는 생생한 사진을 통해 통일부의 활동 모습과 남북관계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왔다. 2004년 한해 동안 84건을 게재하였다.

‘남쪽에 와보니’ 란에는 우리사회에 온 새터민(탈북자)들이 정착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다른 새터민들의 빠른 정착을 돕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20건의 기사가 실렸다.

이밖에 대북정책 추진현황과 관련소식을 모아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약 3,000명의 정책고객들에게 주간단위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로 느껴지기 쉬운 통일문제와 남북간 현안문제를 신세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 형식으로 설명하여 젊은 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04년 한해 동안 통일만화 ‘남남북녀’를 51회 실었다.

라. 통일부 등록기자단 현황

1990년 5월 10일에 설치됐던 통일부 출입기자실이 2003년 9월부터는 정부중앙청사 통합 브리핑실로 전환되었다. 2004년말 현재 등록기자단은 총 73사 210명으로 일간지 32사, 통신 2사, 방송 13사, 영자지 2사 및 인터넷 매체 등 기타 24사로 구성되어 있다

제3절 통일교육의 내실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일교육은 학교 통일교육과 사회 통일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학교 통일교육은 각급 학교 등에서, 그리고 사회 통일교육은 공공 교육훈련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에 관련된 전반적 정책의 수립 및 종합 조정,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히, 1999년 2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정부의 통일교육 활성화 임무,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지원 강화 등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범국민적 통일교육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추진체계를 정립하고 다양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통일교육 추진체계 확립

가. 통일교육지원법 개정

정부는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교육을 보다 체계화·활성화하고, 일부 국민들 사이의 대북의식 갈등 예방과 청소년층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2004년 5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05년 1월 27일 공포(법률제 7355호)되었다. 부칙규정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각급 교육기관은 이를 반영토록 하였다. 둘째,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시 국회의장 추천 수를 현행 6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였다. 셋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주민들의 통일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법개정을 통해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됨으로써 국민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통일교육을 보다 체계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각 지방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고 통일교육 시설 부족문제 등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교육원 전경

나. 통일교육 기본방향 정립

(1) 통일교육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와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12월에 「2005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5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은 통일교육의 인프라 정비, 국민에게 다가가는 통일교육, 우리 체제에 대한 자긍심 교육 강화와 통일문제 무관심 해소, 통일교육 정보화 확대,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방식의 개선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 계획은 통일부,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문화관광부, 노동부, 여성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 11개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교육청 및 통일교육협의회의 2005년도 사업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2) 「통일교육지침서」 발간 배포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보완하고 통일문제 전문가와 학교·사회 등 통일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발간한 이후 현재까지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특히,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는 통일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년과 달리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일반용」과 「학교용」으로 이원화 하여 발간하였다.

「일반용 통일교육지침서」는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환경의 변화를 균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고,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는 자라나는 세대인 청소년들이 통일과 북한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학교급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통일교육지침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의 신설을 통해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에 관

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명문화하였다.

(3)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운영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교육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설치되었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국회의장 추천인사, 민간전문가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003년 8월에 제3기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제3기 위원회는 통일교육관련 민간단체 대표들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국민합의에 바탕한 통일교육기반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2004년 12월에 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일반용)」, 「2005년도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앞서 통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실·국장급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실무위원회는 2004년 12월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인 통일교육기본계획 등을 사전 검토하였다.

(4)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개최

정부는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민들의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기관의 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지원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전국 각 지역의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과 올바른 통일교육 방향 정립에 역점을 두고 각 지역교육청과 함께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 및 도덕·사회과 교사를 초빙하여 주제발표 및 집중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총 4회(8.18 강원도, 9.20 충청남도, 12.14 광주광역시, 12.16 부산광역시)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2. 통일교육의 다양화

가. 초청교육

정부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보화 시대에 맞춘 사이버 통일교육 확대, 교육과정 운영평가 및 지속적인 개선대책 추진, 평화번영정책 및 남북관계 진전 이해,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통일교육을 추진하여 왔다.

2004년에는 총 42,706명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1,447명,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3,716명(원격교육 331명, 원격-초청 연계교육 230명 포함),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 12,996명, 공직자 1,268명, 사회각계인사 1,046명, 국내외 순회교육 22,233명 등이다. 특히 지난 한 해동안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에 대한 통일교육 수요는 2003년의 9,152명에 비해 대폭 증가한 12,996명이었다.

이러한 통일교육 수요 증대에 대하여 정부는 통일교육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의에 맞게 강의제목과 내용을 조정하고, 초청교육뿐 아니라 개성공단 남측근로자에 대한 현지 출장교육 등 「찾아가는 교육」도 실시함으로써 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교육내용은 기본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분하여 ‘국제질서 변화와 통일 환경’, ‘평화번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 ‘최근 북한실상과 변화 전망’ 등을 기본과목으로 편성하고,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협력 실태’, ‘남북교류협력과 경제공동체 건설 방안’, ‘민간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등 대상별로 특화된 전문과목을 개설하여 운용하였다.

나. 순회교육

순회교육은 국내외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내교육은 각 지역의 주요 인사나 사회교육기관 단체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다.

(3) 도전 통일벨



2004년 처음 게임 형태의 퀴즈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된 「도전 통일벨」은,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인터넷 퀴즈 게임을 응용하여 전국의 고교생들이 통일·북한관련 문제 50문항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고교생 3,537명이 도전하여 50문제를 모두 맞춘 퀴즈장

원 1명을 포함하여 총11명의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및 부상품을 제공하였다. 특히 상위 1,000명에 대해서는 금강산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2004년도 사이버 통일교육 이벤트 실시 현황 】

구 분	통 일 4 행 시	통 일 퀴 즈	도 전 통 일 벨
참여자	3,027명	32,550명	3,537명
대상	학생/일반인	제한없음	고교생
당선자 (수상자)	우수작 125건 (당선작 홈페이지 게재)	150명 (정답자 중 추첨)	11명 (상위 1,000명 금강산 체험학습 실시)
주요내용	통일한국으로 4행시 짓기	통일·북한관련 퀴즈 (3문항)	통일·북한관련 50문제 도전 퀴즈 장원 선발

3. 통일교육 지원 확대

가. 학교통일교육 지원

정부는 미래의 통일주역이 될 초·중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각종 정보·자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통일교육 실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2001년부터 16개 시·도교육청 통일교육담당 장학사 32명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장학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4년도에는 최근 급변하는 통일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학교 통일교육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동 장학협의회를 전국의 시·군·구 교육청 소속 장학사들로 확대, 동 협의회 인원을 총 400명으로 구성하였다. 통일교육장학협의회 운영을 통해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학교 교육방향을 재정립함과 동시에,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침, 남북관계 현안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정확하고도 깊이 있는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또한, 학교통일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통일교육시범학교(초등학교 8, 중학교 12, 고등학교 7, 총 27개 교)에 대해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지원하였다. 이들 시범학교에 대하여는 통일교육지침서를 비롯, 각급 학교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필요한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영상자료, 시범학교 전시용 패널, 통일정보신문 등 주·월간 정기간행물 등을 제작·지원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원 초청교육을 통해 통일교육 관련 사례발표회, 판문점 견학 등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세대로 하여금 분단의 아픔을 느끼게 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함양시키기 위해 통일부가 주최하고, 시·도교육청 및 각 지역 통일관이 주관하는 「전국 학생통일글짓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초·중·고 각각 운문 및 산문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전국 총 10,424개 학교에서 1,249,011명이 참가